

친환경 농업, 도시민과 나눔의 농사로

오익환 · 이은정 부부
충북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

충북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 본동네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산자락에 오익환(65세) 씨의 외딴집이 있었다. 지나가는 차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한길에서 '인우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길로 꺾어들었다. 인우원 정문 못 미쳐 시멘트 포장인 오른쪽 농로를 택해 천천히 달려가니 오씨의 농장이 나왔다.

오씨의 집과 이웃할 귀촌예정자 만나다

조용하던 농장에 나타난 낯선 차와 사람들을 보고 개들이 짖어대며 소란스러워졌다. 오씨가 쫓아 나와 개들을 꾸짖으며 손님을 맞았다.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언덕바지에 그가 사는 집이 있었다. 결코 화려하거나 크지도 않고 아담하고 소박한 콘크리트 단층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잘 가꾼 잔디가 포근하게 느껴졌다.

잠시 집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 오씨 집 농장 부근에서 차 소리가 났다. 또 한 번 개들이 소란하게 부산을 떠는 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농장 안으로 들어와 우리 일행이 타고 왔던 차 옆에 주차를 했다. 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한 쌍의 부부 같았는데 남자가 무엇을 들고 오씨 집을 향해 올라왔다. 오씨가 가까이 다가오는 손님들을 알아보고 반가이 맞았다. 중년부부였

는데, 오씨에게 추석선물로 한 상자의 배를 가져왔다. 그러나 먼저 와 있는 우리 일행을 보더니 남자는 배 상자를 정원의 테이블에 내려놓고 오씨와 악수를 나누는 후 곧바로 내려간다. 서로 겹쳐서 온 손님들이라 함께 하기가 불편하고 어색할 것 같아서겠지만 바쁜 체 하며 그냥 떠나겠다는 그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오씨 부부와 우리 일행이 만류하고 나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 앞으로 오씨의 이웃이 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전에서 귀촌하기 위해 오씨의 농장 옆에 땅을 사놓고 터를 닦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공휴일이나 왔다 가곤 하는데 오씨에게 일을 부탁하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아 보은의 선물을 가져온 것이었다. 배 상자를 가져온 부인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 오씨의 부인 이은정(62세) 씨와 몇 마디 더 안부를 나누며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사연을 대충 들은 우리 일행은 반색을 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주선하고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교육시키기도 하는데 잘 만났네요. 아저씨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요.”

배 상자의 부인은 차에 시동을 거는 남편에게 다가 가서 모시고 다시 같이 올라왔다. 서로 통성명을 했

는데, 그 손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성락선 박사로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약초시험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모두가 오씨의 거실로 들어갔다. 오씨의 부인 이은정 씨가 삼겹살을 굽고 상추쌈까지 곁들여 넉넉하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맛있게 들면서 귀촌을 화두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10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이웃과 서로 섬기며 보금자리를 꾸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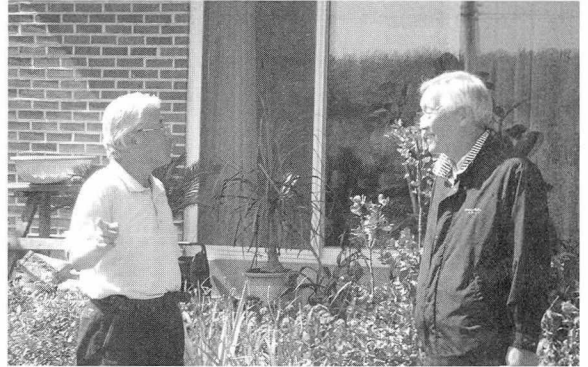
오익환씨는 올해 귀농 10년째로 1996년 서울에서 내려왔다. 전국을 두루 다니며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구입한 땅이 이곳의 1만5천 평이었다. 당시는 경운기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농로가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의 차는 논바닥에 빠지기 예사였다. 그래도 들일하던 동네사람들이 달려와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차를 건져내 줬다. 예전에 사람이 살던 외딴집에 그대로 들어가 산골생활을 시작했지만 전깃불도 없었다.

“그때는 우리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우원(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들어온 후 5년 지나 생겼지요.”

원시시대나 다름없는 생활을 1년이나 하다가 자부담으로 전주를 세워 전기를 가설했고, 보은군에서도 농로를 포장해주는 등 해가 가면서 점점 나아졌다. 그러나 처음 5년간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토담집에서 불편하게 살았다.

“서울 친구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갈 정도였죠.”

부인 이씨는 처음 내려와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남편이 서울생활 30년을 접고 귀촌하겠다는 뜻을 밝힐 때부터 이씨는



집 앞 뜰에서 강춘성회장과 오익환님의 담소.

반대했었다. 그래도 오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처음 1년은 혼자 내려가 살면서 산지를 개간했다. 중장비를 불러 직접 지휘하며 토목공사를 했다. 결국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내려온 이씨는 한동안 밤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서울생활이 그리워 상경할 구실만 찾았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복하면서 농사도 배우고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감자와 호박 등 이웃에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며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조사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친해졌지요.”

게다가 매주 두 부부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안을 얻었고, 불우이웃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하며 새로운 보람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이씨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시골생활을 즐기고 있다.

“맑은 공기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서울 친구들이 초청해주길 기다렸지만 지금은 오라고 할까봐 염려돼요. 서울 가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오씨는 한 술 더 떠 이렇게 대꾸했다.

“저 사람 요새 소원 성취했죠. 연애하던 시절 따달라고 졸랐던 별과 달을 요즘 내가 밤마다 맘껏 따주니까요.”

마치 두 사람은 60대의 나이도 잇은 채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처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너무나 정다워 보인다.

소박한 농가주택과 나눔의 농사로 행복한 나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30평이 채 안 되는 단층 슬라브 지붕의 양옥으로 5년 전에 지었다. 통유리로 전망이 좋은 거실과 방 3개가 있다. 오씨가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소박하게 지었는데, 그 이유는 농가주택으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30평을 넘기면 일반주택이 되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요. 집도 직영해서 제가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절감했지요.”

별이 잘 들고 들판을 굽어볼 수 있는 집 뒤에는 축사가 있었다. 염소 80마리, 산양 3~4마리, 개 6마리를 키운다.

“염소는 방목을 하는데, 뒷산에는 울타리를 쳐놔고, 집 앞쪽으로는 백구(흰 개)가 더 나가지 못하도록 봐 줍니다.” 진도개였는데, 농장 주차장에서 지키고 있다가 염소가 가까이 오면 짖으면서 겁을 준다. 역시 영리한 짐승이라 목동 구실을 톡톡히 하며 오씨 부부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300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괜찮았어요. 처음 2~3년은 돈을 벌었지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요새 염소를 기르지만 재미가 없어서 다시 소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씨는 농민이 고생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장사꾼에게 싸게 넘기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문을 받아 공급해주는 식으로 직접 판매한다고 했다.

“앞으로 집 앞에서 밤나무 발까지 전부 울타리를 쳐서 특수 닭을 하려고 합니다. 미생물 처리한 발효사료를 먹여 비싸게 팔 수 있는 알을 생산하겠습니다.”

오씨는 농산물도 무농약으로 생산한다.

“제초제는 전혀 안칩니다. 올해 2천 평의 논을 임대해서 미생물 농법을 했는데, 1.5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현미로 가공해서 다 팔았죠.”

이웃사촌과 외이들의 귀촌을 기다리며

오씨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4천만 원,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 결국 경기도 분당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분당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오씨는 전혀 후회가 없었다. 그 사이 여기도 땅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기(분당의 옛날 아파트) 값이나 여기 값이나 똑같습니다. 옛 동료들(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이 저한테 땅을 좀 잘라 달라고 농담하며 우릴 부러워하죠.”

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에서도 군침을 흘리며 땅을 팔라고 유혹하러 온다고 했다. 물론 오씨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500평 정도로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저처럼 대규모로 개간하는 것은 말립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용기가 없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다행히 내년에는 이사 오게 될 성락선 박사 부부와 이웃사촌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생각으로 오씨 부부는 마냥 행복했다. 오씨 부부에게 꼭 하나 소원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만두고 내려와서 영농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33세의 미혼이라 참한 아가씨도 어서 만났으면 좋겠고... ㉞